

NOROO

NOROO

Spring. 2018



Spring. 2018

NOMAD,
먼저 달리다。

NOROO Quarterly Magazine | 2018년 봄 46호

NOROO

**Special Theme****NOMAD, 먼저 달리다****06 Column**

위기를 기회로 보다 빠르게 전환하라

08 Interview

NOMAD,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12 Information

비전을 향해 다양하게, 빠르게

Culture Gallery**16 Finance**

금융시장의 혁명, 핀테크

18 Stationery

나만의 만년필, 일상을 기록하는 즐거움

20 Taste

마음도, 접시도, 손도 가벼워지는 샌드위치

22 Travel

산 아래 그곳, 평창을 거닐다

NOROO People**26 NOROO Way Restart**불굴의 NOROO,
또 다른 백년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
'NOROO 그룹 가치/역사 이해 및 공감' 교육**30 Focus on NOROO**날마다 좋고 언제나 좋은 NOROO와의 동행
2018 (주)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초청 세미나**34 High Five**NOROO인의 자부심으로
지역 노사문화를 선도하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38 Family Time**풀잎의 싱그러움과 꽃잎의 향기로움을 담다
(주)포승ESQM팀 김대기 과장 가족**42 Special Store**자보 도료로 환경을 지키다
(주)중부**46 News Briefing**

반려동물을 위한 예의, 펫티켓

50 1 Minute Guide

(주) Behind Cut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주)노루홀딩스 경영지원팀 조용걸 과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13층
T:02-2191-9651(주)노루페인트 마케팅전략팀 지남철 차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128(주)아이피케이 총무팀 최대섭 차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 부산회관 17층)
T:051-580-8363(주)노루오토코팅 경영기획팀 안세현 주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 7길 28
T:031-8059-9533(주)노루케미칼 업무지원팀 현준 대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85번길 13
T:031-599-7276(주)노루비케미칼 경영지원팀 한선용 주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11
T:041-620-6200(주)노루로지넷 경영지원팀 전희경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63(주)노루알앤씨 경영지원팀 현준 대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85번길 8
T:031-599-7276칼라메이트(주) 지원팀 유은아 주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79

NOMAD, 먼저 달리다



21세기는 새로운 유목민의 시대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첨단기기를 준마 삼아 온라인을 달리며 그 방향은 새로운 변화에 시시각각 반응하며 계속 변화한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발상은 물론, 민첩한 전환과 빠른 적응 또한 절실해지고 있다. 쫓기는 자가 아닌 미지의 영역으로 먼저 달리는 자가 먼저 NOMAD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Column	위기를 기회로 보다 빠르게 전환하라	06
Interview	NOMAD,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08
Information	비전을 향해 다양하게, 빠르게	12

위기를 기회로 보다 빠르게 전환하라

반복되는 위기

진퇴양난의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깝게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축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미국은 양적완화정책을 해결책으로 삼아 천문학적 자금을 금융시장에 쏟아부었다. 이로써 미국 경제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으로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출구 전략 시행을 본격화했다. 그 시작이 금리인상이다. 그러나 아직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변화는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다.

고용과 물가, 주택과 관련한 경제지표가 호조를 이어가는 미국은 물가상승의 압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여 현재 미국 기준금리

는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2018년에도 금리 인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의 가계부채에 화학적 결합을 이뤄 부채 위기가 커지고 가계파산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금융경제위기는 본질적으로 부채위기다. 과거에도 미국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을 때 전 세계의 달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경제위기가 일어났다.

불확실성의 지속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다. 곳곳에 복병이 도사린 엄혹한 환경이다.

최근 각국 스트롱맨들의 리더십은 보호무역주의로 일관되는 양상이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거래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우

리나라의 대미수출 철강제품에 관세폭탄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미동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아울러 최근까지 군사외교적 문제로 비화된 사드 배치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교란시켰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국내 사정도 만만치 않다. 작년은 해양조선업의 위기가 현실화된 해라면 올해는 GM의 철수 여부와 후폭풍이 문제다. 만약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관련 업계 종사자의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 불확실성이 북핵 리스크를 빼놓을 수 없다. 북핵 변수는 꼬여만 가는 대내외적 경제 상황을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빠르게 대처하는 노마드 정신

전망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작은 기회도 빠르게 캐치하는 노마드 정신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노마드(Nomad)는 라틴어로 유목민을 의미한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파즈가 사용한 노마디즘(Nomadism)에서 유래했다. 유목민은 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했기에 한 곳에 정주할 수 없었고 낯선 곳에 끊임없이 도전하여 개척하였다. 그들의 삶은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의 반복이었고 그들의 환경은 언제나 불확실성 그 자체였다. 위기와 불확실성이 삶의 본질이었던 그들은 작은 기회에도 민첩하게 반응했다.

우리 경제 환경이 무척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과거에도 늘 어려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4차 혁명으로 진화하는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의 대처는 더욱 빨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4차 혁명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가상화폐, 자율주행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이러한 4차 혁명은 기존의 산업 구조를 급격히 재편하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사실 4차 혁명의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이다. 세계 제일의 정보통신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시장의 장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 것이다. 시각을 달리하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은 기존의 경제 구조를 재조정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성장통이라 할 수 있다.

복잡한 경제 상황과 맞물려 주위에서는 이미 크고 작은 도전들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함은 물론, 나아가 저돌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더 나은 곳을 향해 떠났던 유목민처럼 우리 역시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를 개척해야 한다. 모든 것의 속도가 빨라지고 불확실성 또한 커지는 지금, 적극적 위기 타개를 위해 노마드의 정신과 태도를 다시 지녀야 할 것이다.



글 · 배경찬

현재 리치큐브(Rich Cube) 대표, 네오머니 금융교육팀의 파트장을 맡은 바 있으며 한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공기업 관리자 자산관리과정을 강의하였다. 네이버 증권부문과 한국경제신문의 재테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국경제방송 잡매거진, PBC방송 재테크 부문, 머니투데이 경제방송에 출연하였고 현재 다수 금융기관에 출강 중이다.

NOMAD,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

한국의 젊은이들아! 집안이 나쁘다고,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 데 동원한 몽골 병사는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다. 나는 배운 게 없어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적은 밖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다.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

온라인 상에서 칭기스칸의 편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글이다. 그러나 이 글은 칭기스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다. 칭기스칸이라면 이 시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 것이라 상상하고 쓰여진 것으로, 글쓴이는 김종래 충남대학교 특임교수다. 그는 밀레니엄을 앞두었던 20년 전, 첫 저서 『밀레니엄 칭기스칸』을 펴냈다. 유목민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분석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에는 유목민의 정신이 절실하다고 말한 그의 예측과 요구는 정확했고,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지금도 유효하여 ‘노마드’는 여전히 좋게 되는 시대상이다. 김종래 교수는 그 뒤로도 유목민에 관한 여러 저서를 내며 21세기의 관점으로 칭기스칸과 유목민의 역사를 재조명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그 가치가 여전한 노마드 정신에 대해 묻고자 그를 만나 보았다.

Q. 김종래 교수께서는 유목민의 강점을 일찌기 이야기해

A. 오셨다. 유목민의 강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A. 유목민을 이야기하자면 먹거리부터 이야기를 해야 한다. 사람은 식물, 아니면 동물을 먹는데 그중 무엇이 더 먹기 쉬울까? 움직이지 않는 식물을 먹는 게 더 쉽다. 나가서 힘들게

채취하지 말고 주변에서 키워 먹자 하여 이루어진 것이 머무는 삶, 나아가 농경 정착 민족이다. 이 농경 정착 민족은 하늘의 날씨와 땅의 작물을 살펴야 하기에 기본적으로 수직 사회가 되고 잉여 농산물로 계급을 발생시킨다. 바운더리를 긋고 사니 파벌을 만들고 배타적인 사회가 된다.

반면 동물을 먹으려면 일단 동물부터 먹여야 하니 초지를 찾아 계속 이동해야 한다. 풀은 어디 있는지, 적은 어디 있는지, 동료는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하니 수직의 하늘보다 수평의 옆을 봐야 해서 배타적이 될 수가 없다. 개방과 배타는 그들에게 미덕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늘 새롭고도 불확실한 곳을 향해야 하기에 노는 이 없이 총력을 다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들은 ‘빨리빨리’를 명령할 시간에 스스로 먼저 속도를 냈다. 그들에게 속도는 종교였고, 승배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이를 악물고 우격다짐으로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 속도를 과학적으로 높였다. 이를 위한 정보 공유도 중요시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조직 구조와 역참제다. 그들의 조직은 레고처럼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재구성될 수 있었다. 승부 끝에는 쓸모 있는 모든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다양성을 포용하여 전체와 조화



시켰고. 그렇기에 레고처럼 호환성과 표준성을 갖춘 조직이 가능했다. 역참제는 요즘의 단체가 톡방처럼 모두에게 빠르게 정보를 공유시켰다. 땅 위의 말이 현재 온라인의 비트처럼 달려간 셈이다. 요즘의 스마트폰은 유목민의 최우량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Q. 유목민은 가장 어린 막내에게 아버지의 게르(이동형 가옥)와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도 인상적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A. 가장 어렵고, 약한 존재이니 형들과 동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래야 했던 것이다. 이 역시 도덕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조직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지금 시대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해석,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동체만이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으니까. 최고만을 누리는 삶도 용인해야 하지만, 최저의 삶도 보장받을 수 있어야 문명사회라 할 수 있다.



Q. 노마드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며 심지어 트렌디하기까지 한 단어다. 유목민을 화두로 삼으신 것은 어떤 계기에서 였는가?

A. 당시 우리나라는 첫 금융위기인 IMF 외환 위기 속에 있었다. 기후나 전쟁, 가난의 위기는 겪어봤지만 글로벌 체제 속에서 금융 위기를 겪은 것은 처음이었다. 워크아웃, IMF 등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금융 용어들이 튀어나왔다. 이는 우리가 글로벌 멤버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인 대부분이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가장 직격탄을 맞은 이들은 젊은이었다. 이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주어야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유목민 이야기를 꺼집어내게 되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정복한 이야기였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헌책방에서 칭기스칸 일대기를 한 권 구해 읽고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세상은 참 넓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있구나 싶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상상이 시작되었다. 자료가 부족하던 시절에 상상으로 시작된 유목민 탐구는 대학 시절을 거쳐 신문사 사회부 기자가 되면서 점점 많은 자료를 통해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기자가 되면서 정보를 접하기 쉬워졌고 몽골과 수교가 시작되어 부족한 자료를 보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말을 타고 달린 유목민 정신은 다시 온라인을 타고 달려야 했다. 아날로그와 이별하고 디지털 시대로 가는 캐릭터로 칭기스칸과 유목민을 해석할 수 있었다. 제 책을 통해 어떤 이들은 디지털 시대와 유목민을 보고, 어떤 이들은 용기를 보고, 어떤 이들은 디지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Q. 유목민이 현재로 다시 소환된 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간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A. 세상이 발전하려면 기존의 것이 허물어져야 한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문명으로 진입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아직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는 아날로그에 멈춰 있는 것 같다. 사회적으로도 그렇다. 인터넷은 좋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좋은 도구인데 흥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댓글창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욱 들곤 하는데, 젊은이보다는 늙은이들에게서 더 그런 경향을 본다.

우리는 디지털에 대해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기술과 하드웨어적 측면으로는 우리나라가 잘 발전되어 왔다면, 문제는 소프트웨어다. 기업과 조직에서 도구로서의 디지털은 잘 활용하고 있지만 경영 마인드와 조직 문화, 업무 스타일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보를 윗선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유목민들은 정보를 함께, 빠르게 누렸다. 오늘날의 블록체인과 같은 체계였다고 할 수 있겠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같이 알자는 것이다. 모든 이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가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앙으로의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모든 정보가 분산, 공유되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지고 해킹은 도리어 어려워진다.

Q. 농경 정착 민족은 성을 쌓고, 유목 이동 민족은 길을

만든다는 표현을 하셨다. 이러한 유목민이 꿈을 가지면서 성공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유목 이동 민족의 꿈은 어떻게 달랐을까.

A.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 말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근교에 세워진 한 비석의 글귀다. 이 비석은 돌궐제국을 부흥시킨 명장 톤유쿠크의 것으로, 당시 유목민이 겪었던 눈물겨운 사연을 구구절절 기록하면서 장군의 유훈도 위와 같이 새겨놓았다. 유목민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을 보고 앞날을 그려보아야 했다. 환경이 척박했기에 더 잘 살고자 하는 온갖 비전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한 사람의 꿈은 그저 꿈이지만, 만인이 함께하면 현실이 된다. 이 조직이나에게도 꿈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조직원도 함께 한다. 기업으로 치면 스톡 옵션이다. 그렇지 않다면, 비전이 없다면? 조직을 나가게 되는 것이다.

Q. 지금 우리는 새로운 유목민으로서 이 시대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A. 공동의 꿈을 갖고, 디지털 사회에 맞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기득권이란 현재 가진 것으로 이익을 누리는 이들을 말한다. 가진 것을 먼저 버릴 수 있어야 우리는 더 속도를 내고 합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에서는 위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날로그 시대에 가졌던 것을 버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모델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꿈을 공유할 때 우리가 가진 유목민으로서의 기질은 일깨워질 수 있을 것이다.

김종래

한국일보와 조선일보의 사회부, 정치부에서 근무하고 조선일보 출판 국장을 역임했다.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우교수를 지내고 현재는 충남대학교 특임교수로 있으며 저서로는 『밀레니엄 칭기스칸』, 『CEO 칭기스칸-유목민에게 배우는 21세기 경영전략』, 『유목민 이야기』, 『결단의 리더 쿠빌라이 칸』 등이 있다. ‘유목민에게 배우는 21세기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업과 대학 등에서 1천여 회 강연하였으며 한국에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린 공로로 2002년 몽골 정부로부터 북극성 훈장과 친선 훈장을, 몽골 국립대학과 칭기스칸 아카데미에서 명예 박사(역사학) 학위를 받았다.

NETFLIX

비전을 향해 다양하게, 빠르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꿈을 더욱 절실히 쫓았던 칭기스칸과 유목민에게는 그들만의 전략이 있었다. 승전 후에는 적군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뽑아 아군으로 만들었으며 다양한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고 기술을 흡수했다.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함은 물론, 승리의 결과는 공정하게 분배하여 사기를 높였다. 이러한 비전 공유와 전략의 운용은 오늘날의 기업 성공 사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0년 후를 바라보는 꿈으로 시작하다 –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전세계 190개국에서 1억 2천만 여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2012년부터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공급하기 시작, <하우스 오브 카드> 등 유명한 시리즈물로 에미상 3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옥자> 또한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댔고,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

넷플릭스가 처음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꿈은 10년 후의 온라인 서비스를 먼저 바라보고 있었다. 리드 헤이스팅스가 넷플릭스를 창업하던 당시, 미국에는 비디오 대여 체인업체인 ‘블록버스터’가 비디오를 빌려주고 연체료를 무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여기에 넷플릭스는 월 정액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고 반납 및 대여는 우편을 이용해서 더 편리하게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넷플릭스는 업계 1위로 올라섰고 블록버스터는 파산 절차를 밟아 이제 추억 속의 이름이 되었다. 그리

고 넷플릭스는 2007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본격화하여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과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파괴적 비즈니스의 예술은 10년 후를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비전과 정확한 타이밍의 민첩한 실천이 지금의 넷플릭스를 만들었다.

다양한 구성원이 다양한 전략을 만든다

일본의 ‘비 포워드’라는 회사를 소개한다. 중고차 수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주로 해외 사용자들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는데 특이한 것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비 포워드 홈페이지 접속 수가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이어 10위권에 들만큼 많고, 지명도는 도요타를 능가한다는 것이다. 5년만에 매출을 41배 증가시키고 거래 국가 수를 127개국까지 늘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 힘은 바로 인재의 다양성이다. 비 포워드 사는 “신규 거래 국가의 개척은 그 나라 사람

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인재를 뽑는다. 한 예로 몽골 시장을 개척할 때는 몽골인 직원을 뽑았는데 그가 일본의 포인트 카드 제도를 본따 도입한 서비스로 2년만에 몽골 중고차 시장에서 높은 순위권에 올랐다고 한다. 외국인 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좋다는 소문이 나자 유능한 외국인들이 일하기 위해 저절로 모여들어 비 포워드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졌다. 본사 직원의 30%가 외국인이며 그 국적이 30개 국에 이르는 이 회사에서는 오후 4시가 되면 프랑스어, 영어, 스와힐리어 등 여러 언어를 들을 수 있다. 거래 국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즈니스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일본 고유의 비즈니스 매너와 시스템 위에 다국적의 인재들이 전략을 짜고 대응하는 비 포워드는 ‘인재의 다양성’이 기업을 발전시킨 사례로 선보여지고 있다.

더 빠른 전략, 더 신속한 전환

어떤 위기는 천천히 오기도 하지만, 갑작스레 들이닥치기도 한

다. 어떤 상황에서든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위기에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판단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많은 사건, 사고에서 초기 대응을 민첩히 하지 못하고 당황하여 끝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것을 봄았다. 이는 기업 내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세계 1위의 휴대폰 기업이던 노키아가 모바일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을 일찌기 감지하지 못하고, 그 후로도 기존 제품에 매달리다가 끝내 파산하고 말았던 것은 단적인 예다. 그에 반해 구글은 경쟁력의 핵심을 ‘속도’로 규정하고 최선책을 찾지 못했더라도 차선책으로 일단 대응한 후 개선해 나가는 전략을 취했고, 성공해 왔다. 인터넷 내비게이터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자마자 최소한의 기능만을 갖춘 크롬을 내놓고 6주마다 업그레이드하여 결국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따라잡은 것을 보라. 세계적 경영사상가 톰 피터스는 이미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한 시대”를 말한 바 있다. “혁신 제품이 쏟아지는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준비-조준-발사’가 아니라



EMPLOYEES

‘준비-발사-조준’의 순서로 경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이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시제품을 만들고 시장의 반응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하는 ‘린 스타트업’ 경영 전략을 꾀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이디어 발굴과 개발을 위한 정보 공유가 동반되고 복잡하고 느린 의사결정 단계는 축소된다. 초지를 차지하기 위해 누구보다 빨라야 했던 유목민처럼 지금의 기업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성공을 공유하여 함께 나아가다 – 코스트코

칭기스칸의 원래 이름은 ‘테무친’이었다. 몽골족의 최고 지도자가 된 후 ‘위대한 군주’라는 뜻의 칭기스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서도 공평을 추구하여 자신을 그대로 ‘테무친’이라 부르도록 했으며 부하들과 똑같이 입고 먹으며 자신의 것을 부하들과 공유했다. 승전의 보상 또한 기여한 바에 따라 철저히 분배해 주었다. 몽골 사회에는 아직도 이 전통이 남아 있어서 말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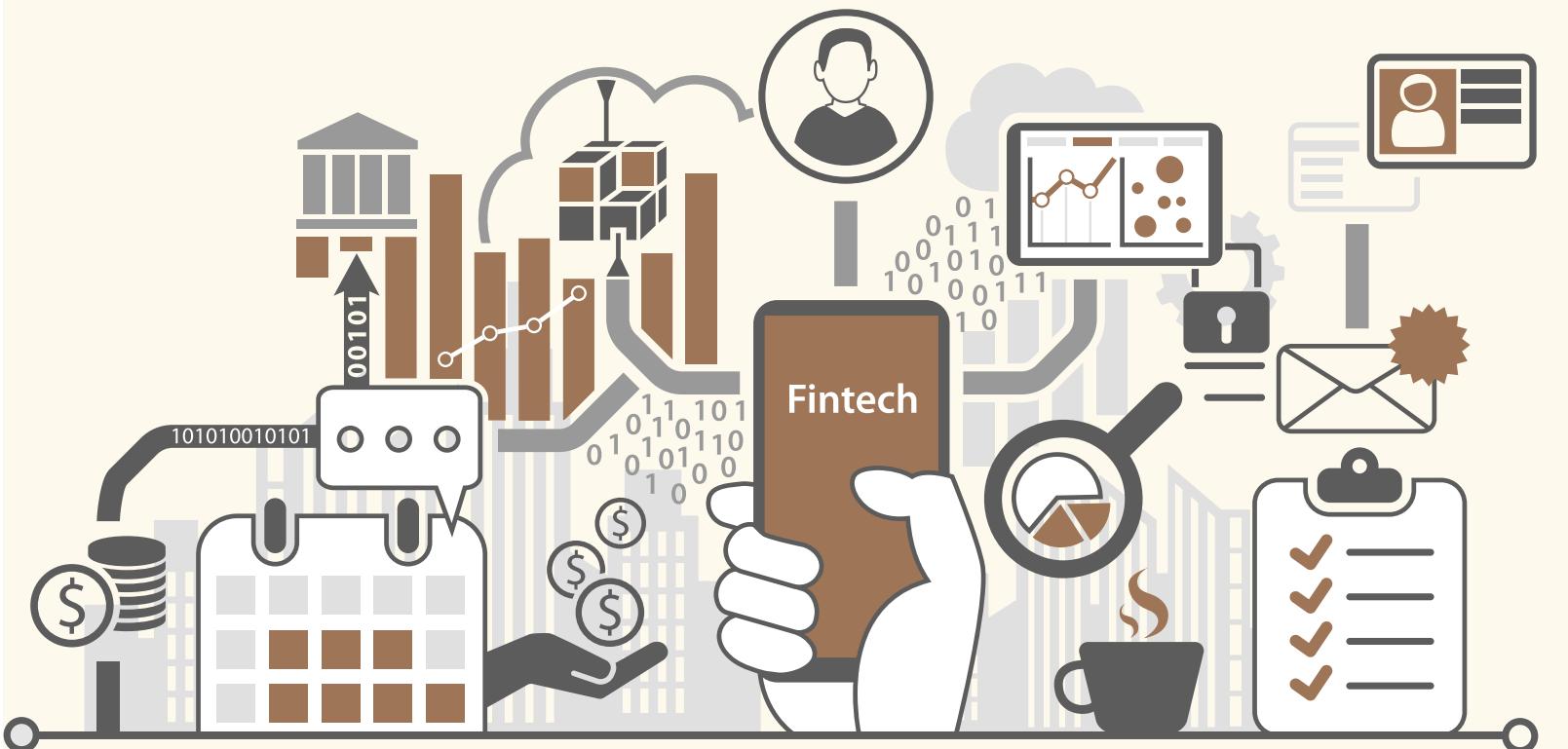
경주에서 우승하면 기수보다 말 조련사에게 큰 포상이 돌아가며 우승마에게도 포상을 한다. 보상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유목민에게 꿈을 향한 동력이 되어주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오늘날에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마켓이 커지면서 대형 백화점, 서점, 쇼핑몰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 속속 줄어드는 요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는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 코스트코다. 코스트코는 동종업계에서도 직원의 임금 수준과 복지 수준이 높기로 유명하다. 단적인 예로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한국의 코스트코는 시급을 9,250 원에서 1만 원으로 더 올렸다. 같은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을 줄이려 각종 수단을 쓰는 여느 업체와는 대조적이다. 코스트코 창업자 짐 시네갈은 “우리처럼 비용에 민감한 조직에서 CEO가 현장 직원보다 수백 배 많은 연봉을 받는 건 잘못”이라고 말하며 적은 연봉을 감수했다. 이러한 문화 때문인지 코스트코는 업계에서 이직률이 낮기로 유명하며 직원 1명당 생산성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CULTURE GALLERY

살랑이는 바람과 따뜻한 햇볕이
손짓하는 계절입니다. 가방 안에
가벼운 도시락 하나 넣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날의 끝에는 적어두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질 거예요.



금융시장의 혁명, 핀테크

아침에 T-머니를 충전해 지하철로 출근했다. 삼성페이로 점심식사를 하고 카카오뱅크에서 부모님 용돈을 송금해 드렸다. 증권사의 알람서비스를 보고 모바일로 주식을 매도했다. 퇴근길에 편의점을 들러 아이들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사고 아침에 충전한 T-머니로 결제했다. 지갑을 한번도 열지 않고 하루를 보낸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다.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금융시장의 새로운 바람, 핀테크에 대해 살펴보자.

글 · 최돈호

핀테크란 무엇인가?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신조어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정보통신(IT, Information Technology), 모바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결합하여 새롭게 발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신용카드나 자동입출금기(ATM, Automatic Teller's Machine), PC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뱅킹, HTS(Home Trading System) 등은 초기 핀테크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 서비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고객의 생활 패턴에 맞게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가 개발되고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다?

핀테크 서비스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간편결제로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미리 등록한 결제수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T페이, LG페이 등이 그것으로 결제는 물론 쇼핑과 결합하여 포인트 적립, 이벤트, 쿠폰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의 보수적인 성격상 초기에는 우려가 많았지만 이제 소액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고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에서도 신용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속속 제공하기 시작

했다. 미국의 페이팔, 중국의 알리페이, 위페이 등은 이미 각국에서 대중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IT기술이 떨어진다고 평가되었던 중국이었지만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알리페이로 결제할 수 없어 불편하다고 항의했다는 뉴스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송금 서비스이다. 이전에도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송금을 할 수 있었지만,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해서 불편했다. 하지만 최근에 등장한 카카오페이지나 토스 등의 핀테크 서비스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토스는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상대방이 토스 사용자가 아니어도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이 적힌 문자를 그대로 복사해 앱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되어 송금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지는 카카오톡 친구 기반으로 채팅창에서 송금 금액과 미리 등록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송금이 완료된다.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점이 없이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온라인 전문은행이다. 올해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그것으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계좌등록을 하면 앱에서 편리하게 모든 은행 거래가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예·적금과 대출 상품 10개와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카카오뱅크는 예·적금, 대출 상품 6개와 외환 서비스,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일반 은행에 비해 예·적금의 이자는 높고, 대출이자는 저렴하며, 수수료는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낮다. 출범 직후부터 엄청난 고객들이 몰리면서 금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네 번째는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공유하는 P2P금융이다. 투자자와 대출자가 직접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서비스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현재 소규모 주택의 토지를 담보로 건축자금을 빌려주는 테라펀딩, 개인 신용 대출을 하는 렌딧, 8퍼센트, 빌리, 어니스트 펀드 등이 있다. P2P금융을 이용할 경우 투자자는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대출자는 기존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카드론 등의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금융권의 까다로운 여신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에게 주목받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대출금리 인하와 고금리 사채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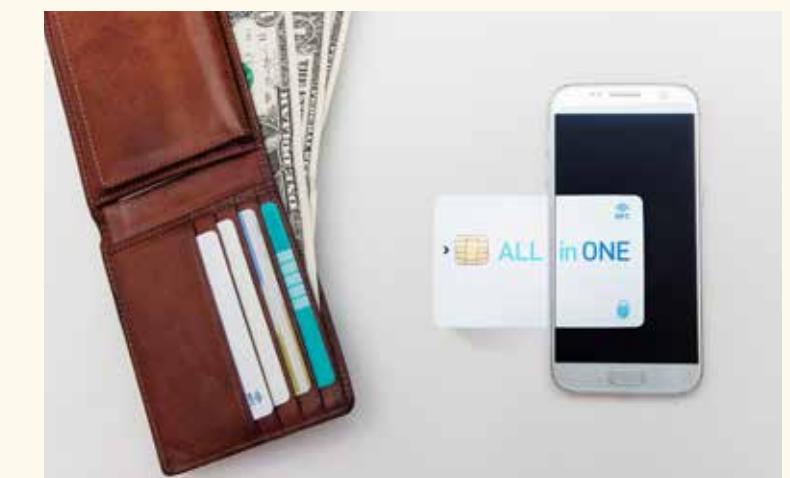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산관리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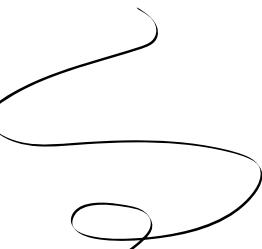
가 있다. 이전까지 PB(Private Banker)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를 합성한 로보어드바이저가 대신하는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의 위험수용성향, 목표 수익률, 자금의 성격 등에 맞는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KEB하나은행 '핀고(Fingo)', 우리은행 '위비봇', 국민은행의 '리브똑똑(Liiv Talk Talk)' 등이 대표적이다.

핀테크, 불안하지 않을까?

핀테크가 편리하지만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될까 봐 불안해 하는 경우도 많다. 핀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각 서비스의 보안 수준 점검이 강화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사용자도 자신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스마트폰 내 보안설정 및 백신 앱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상한 메일이나 메시지는 열어보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 또 신뢰할 수 없는 무선랜에 접속하는 것을 삼가고, 인터넷 공유기의 비밀번호 변경이나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 등 생체 실명인증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새로운 것에 대해 불편해 하고, 경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며 마련이다. 통화만 가능하던 전화기가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진화했듯이 금융시장은 이제 핀테크를 통해 진화하고 있다.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나만의 만년필, 일상을 기록하는 즐거움

디지털 시대에도 꾸준히 펜을 찾고 손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인스타그램에는 매일 #만년필 #손글씨 #필사 #캘리그래피라는 해시태그로 수천 개의 사진과 글이 올라온다. 만년필을 사용해 본 사람들은 종이 위를 스치듯 써지는 부드러운 필기감, 쓸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즐거움, 손으로 만지고 시간을 들이는 느림의 미학을 매력으로 꼽는다. 최근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만년필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천 원짜리 다이소 만년필부터 16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오로라 다이아몬드 모델까지 만년필의 종류와 가격대는 천차만별이다. 용도를 정하고 제품별 특징을 비교해 자신의 만년필을 골라보자. 대표적인 만년필 제품 몇 가지를 소개한다.



• 펠리칸 M200과 소버린 M 시리즈

펠리칸은 세계 만년필 시장을 주도한다. 1838년 독일에서 시작된 기업으로 1929년 처음 만년필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독일 본사에서만 제품을 생산해 높은 품질을 유지한다. 펠리칸은 특히 작은 몸통에 많은 잉크를 저장할 수 있는 충전 방식으로 유명하다. 잉크병의 잉크를 본체의 잉크탱크로 흡입하는 피스톤 필러(플런저) 방식이라 별도의 컨버터나 카트리지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펜을 분리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잉크 교체 주기가 긴 것도 장점이다. 펠리칸 부리 모양으로 마무리된 클립은 주머니에 끼웠을 때 옷감이 상하는 것을 방지한다. 펠리칸 M200은 필기량이 많은 수험생이 피로감 없이 쉽고 빠르게 쓸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고시생 만년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 모델로 자리잡았다. 아주 가벼우며 가격은 18만 5천 원이다. 스트라이프 무늬가 특징인 펠리칸의 소버린 시리즈는 장인들의 독특한 수작업을 통해 탄생한다. 소버린 M400은 펠리칸 대표 모델로 14k 금촉이며, 소버린 M800은 18k 금촉으로 10가지나 되는 굵기가 있다. 소버린 M1000은 현존하는 최고의 연성펜이다. 오랫동안 작가와 기자의 만년필로 불리며 명품 만년필의 명성을 쌓았다. 평생 소장할 만한 만년필을 찾는 애호가들에게 추천한다. 펠리칸 소버린 시리즈의 M400은 50만 원, M800은 75만 원, M1000은 100만 원에 판매된다.



• 모나미 올리카와 153 네오 만년필

국내 문구기업 모나미에서도 만년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모나미의 올리카는 볼펜 한 자루 가격으로 만년필의 세계를 경험해볼 수 있게 한다. 만년필과 잉크 카트리지 3개가 한 세트로 3천 원이다. 기존의 올리카는 F촉이었는데 2017년에는 얇은 EF촉 만년필이 나와 더 세밀한 글자도 가능해졌다. 만년필 입문자와 필기를 자주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최근 출시된 153 네오 만년필은 고급 볼펜 153 네오의 디자인에 고급 소재의 F촉을 적용한 모델이다. 짧은 본체와 금속 클립을 적용해 휴대성을 강화했으며 바디 색상은 다섯 가지이다. 만년필, 리필용 블랙 잉크 카트리지 2개, 만년필 컨버터로 구성된 기본 세트 가격이 2만 5천 원이다. 리필용 잉크 카트리지는 12가지 컬러가 있다. 153 네오 만년필은 기존 저가형 모델에 아쉬움을 느꼈던 사용자와 손글씨, 캘리그래피, 필사를 즐기는 이들에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필기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라미 사파리

라미는 1930년 독일에서 탄생한 기업으로 품질 유지를 위해 모든 제품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제작한다. 라미의 베스트셀러자 시그니처 아이템인 사파리 시리즈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만년필 중 하나다. 감각적 디자인과 합리적 가격의 라미 사파리는 청년층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국내 만년필 시장을 대중화시켰다. 라미 사파리는 책상에만 올려두고 사용하는 만년필이 아니라 늘 휴대 가능한 아웃도어 컨셉의 필기구로 ABS 플라스틱 소재에 강도 높은 스틸 펜촉으로 내구성이 뛰어나다. 클립이 크고 튼튼해 노트나 주머니에 꽂아두기도 편하다. 본체에는 잉크 확인창이 있어 잉크 교체 시기를 쉽게 알 수 있다. 잉크가 다 떨어지면 새 리필용 잉크 카트리지를 꽂으면 된다. 펜촉은 기본 측 F부터 가는 측 EF, 굵은 측 A, M, B, 캘리그라피용까지 나오며 다양한 측을 바꿔 끼워 사용할 수 있다. 이름을 새겨주는 각인 서비스도 가능하다. 라미 사파리의 다양한 색상은 10대~20대 사이에서 개성을 표현하는 아이템으로 활용된다. 가격은 5만 6천 원이며 세련된 디자인, 휴대성과 가성비 좋은 만년필을 찾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만년필을 고를 때 유의할 점

만년필은 측의 성질에 따라 경성과 연성, 그리고 굵기에 따라 UEF(0.3mm), EF(0.5mm), F(0.7mm), M(1.0mm), B 등으로 나뉜다. 측이 길고 하트홀이 길수록 연성펜이라고 보면 되는데, 잘 휘기 때문에 필기감이 부드럽고 경성은 이와 반대다. 연성은 금촉, 경성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드는 스틸촉인 경우가 많다. 초보자들은 잘 구부러지지 않는 스틸촉이 적합하고 필압을 조절하기 어려우면 M, 익숙해지면 EF, F촉을 사용하는 게 좋으며 필기에는 EF, F촉을 추천한다. 사용할수록 측 끝이 마모되면서 약간 굽어지므로 한 단계 가는 측을 사는 것도 좋다. 만년필을 보관할 때는 펜촉이 위로 향하도록 보관한다. 글자의 굵기는 측 두께뿐만 아니라 필압, 잉크, 종이, 필기 각도와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만년필을 사기 전 직접 사용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만년필을 고르는 게 좋다.

마음도, 접시도 손도 가벼워지는 샌드위치



A.

BLT 샌드위치

A

짭짤한 베이컨(Bacon), 아삭한 양상추(Lettuce), 새콤한 토마토(Tomato)가 완벽한 궁합을 이루는 기본 샌드위치. 신선한 재료와 바삭하게 구운 빵이 맛을 좌우한다. 재료의 수분이 빵에 스며들지 않도록 빵에 버터를 바르고 마요네즈를 한 번 더 발라주는 것이 포인트다.

재료 (2인분) 식빵 6장, 큰 토마토 1개, 양상추 6장, 베이컨 6장, 버터 2~3큰술, 마요네즈 3~4큰술

- 식빵은 노릇하게 구워 빵 하나당 버터 1/2큰술의 양을 얇게 펴 바른다.
- 토마토는 1cm 두께로 자르고 양상추는 식빵 크기에 맞게 자른다.
- 판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뜨겁게 달군 뒤 약한 불에서 베이컨을 바삭 구워 종이 타월로 기름기를 닦는다.
- 식빵에 마요네즈를 바르고 양상추, 토마토를 올린다. 마요네즈를 바른 식빵을 한 장 더 올리고 양상추, 베이컨, 식빵 순으로 덮는다.



B.

삼색 샌드위치

B

김자, 오이, 당근 등 몸에 좋은 삼색 야채를 넣어 색이 예쁘고 푸짐한 샌드위치다. 담백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간다. 재료에 물기가 있으면 질척거려 샌드위치가 농눅해질 수 있으니 당근과 오이는 잘게 다져서 면포로 물기를 꼭 짠 뒤 마요네즈에 버무리는 게 좋다.

재료 (2인분) 식빵 8장, 슬라이스 체다 치즈 6장, 오이 1개, 감자 2개, 당근 2/3개, 버터 1큰술

마요네즈 소스 마요네즈 6큰술, 소금 3작은술, 설탕 1작은술, 후춧가루 조금

- 오이와 당근은 잘게 다져서 소금물에 10분쯤 절인 뒤 물기를 꼭 짠다. 감자는 꿀은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삶아 뜨거울 때 으깬다.
- 식빵은 달군 팬이나 토스터에 살짝 구운 뒤 실은에 녹인 버터를 한쪽 면에 발라둔다.
- 1의 재료에 각각 마요네즈를 2큰술씩 넣고 고루 섞는다.
- 식빵에 슬라이스 체다 치즈를 한 장 깔고 오이 샐러드를 펼쳐 얹은 다음 식빵, 슬라이스 체다 치즈, 감자 샐러드, 식빵, 체다 슬라이스 치즈, 당근 샐러드, 식빵 순으로 올린다. 무거운 것으로 눌러 숨이 죽으면 테두리를 잘라내고 먹기 좋게 자른다.



C.

햄 치즈 오이 롤 샌드위치

C

만들기 쉽고 포장하기 좋을 뿐 아니라 손에 묻히지 않고 먹을 수 있어 아외 도시락으로 어울리는 샌드위치다. 롤 샌드위치는 동그랗게 말린 모양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식빵을 밀대로 밀면 롤을 말았을 때 잘 풀어지지 않는다. 너무 세게 밀면 빵이 납작해져서 볼풀이 없어지니 힘을 적당히 조절한다.

재료 (2인분) 식빵 10장, 오이 1/2개, 슬라이스 햄 2장, 슬라이스 체다치즈 2장

마요네즈 3~4큰술

허니 머스타드 소스 마요네즈 4큰술, 머스타드 2큰술, 꿀 2큰술

- 식빵은 가장자리의 갈색 부분을 자르고 밀대로 가볍게 밀어 납작하게 만든다.
- 오이, 슬라이스 햄, 슬라이스 체다 치즈는 1cm 폭에 식빵보다 조금 작은 길이로 잘라둔다.
- 허니 머스타드 소스를 식빵의 한 면에 바르고 속재료를 올려 둘둘 말아준다.



D.

베이컨 양배추 볶음 크루아상 샌드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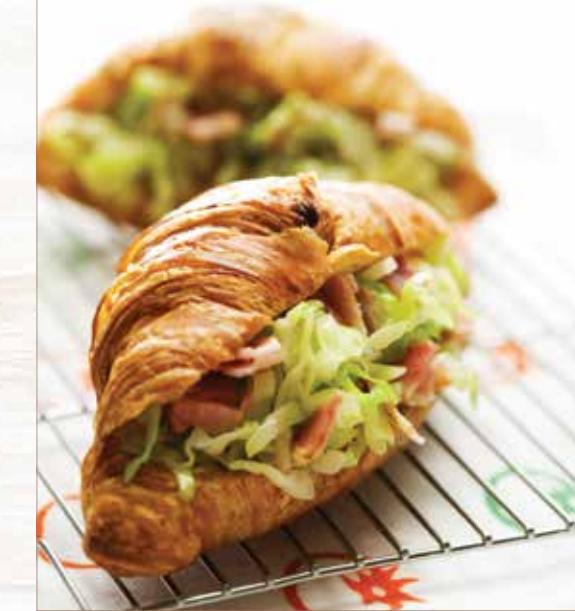
D

양배추는 샌드위치에 그냥 넣어도 좋지만 살짝 익혀서 사용하면 먹기 편하고 맛도 좋아진다. 베이컨을 충분히 볶아 팬에 베이컨 향이 퍼지면 양배추를 넣고 함께 볶아 양배추에 베이컨 향이 배어들게 한다. 그후 넓은 접시에 펼쳐 놓고 식하면 아삭한 양배추의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재료 (2인분) 미니 크루아상 4개, 베이컨 6장, 양배추 200g, 소금과 후춧가루 조금
씨겨자 소스 씨겨자 1~2큰술, 다진 양파 1/6개

- 크루아상을 옆으로 길라 아래면에 씨겨자 소스를 바른다.
- 베이컨은 1cm 폭으로 자르고 양배추는 3cm 길이로 굵게 채썬다.
- 팬에 베이컨을 볶다가 양배추를 넣고 센불에 재빨리 함께 볶는다. 양배추가 숨이 반쯤 죽으면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한다.
- 갈라놓은 크루아상 사이에 한김 식힌 베이컨 양배추를 네비히 채운다.

*알알이 박힌 씨가 톡톡 터지며 매콤, 새콤한 맛을 내는 씨겨자 소스는 크루아상처럼 기름기가 촉촉한 빵에 바르면 느끼한 맛을 줄일 수 있다. 소스는 얇게 골고루 펴 바르자.



『오늘은 샌드위치』 요리 안영숙 / 도서출판 리스컴

『오늘은 샌드위치』에는 66가지 다양한 샌드위치가 담겨 있어 각자의 요리 솜씨와 입맛에 따라 메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요리 과정이 사진과 함께 설명되어 쉽게 따라할 수 있다. 각 요리에는 '소스 맛내기' 정보와 쿠킹 TIP 등 보다 자세한 노하우가 담겨져 있다. 이외에도 빵의 종류와 기본 속재료 및 소스를 소개하고 샌드위치 맛내는 비법, 포장법 등을 덧붙여 초보자에게 충실히 가이드가 되어 준다. 샌드위치 전문점들의 인기 메뉴를 모아놓은 코너도 꼭 따라 만들어 보자.

산 아래 그곳, 평창을 거닐다

평창에서는 파란 하늘과 느릿느릿 흘러가는 구름, 머릿속까지 시원해지는 청명한 공기를 만날 수 있다. 전나무 우거진 숲길을 걷다보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고 상쾌해진다. 꼭꼭 숨겨져 아직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오롯이 나를 돌아보고 진정한 휴식과 치유를 누릴 수 있다. 지난해 말 개통한 경강선 KTX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평창까지 1시간 남짓 걸린다. 멀게만 느껴지던 평창을 하루 코스 여행으로 가뿐하게 다녀오거나 꽉 막힌 고속도로 걱정없이 느긋하게 주말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동계올림픽이 이제 막 끝난 평창에서 지난 겨울 뜨거웠던 순간을 추억하고, 천천히 스며들다가오는 평창의 봄을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성지로 국보와 오랜 건축물을 둘러볼 수 있어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역사체험을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다. 월정사에서는 국보 48호인 8각 9층 석탑과 대웅보전을, 상원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종인 상원사 동종과 목조문수보살상을 볼 수 있다. 월정사는 템플 스테이도 운영한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머물며 휴식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도시의 직장인들과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다. 월정사에 가려면 KTX 진부역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면 된다. 진부터미널에서 1시간 간격으로 월정사행 버스가 있다.

월정사 전나무숲길과 선재길

월정사 매표소를 지나면 ‘월정대가람(月精大伽藍)’이라는 현판이 붙은 일주문이 보인다. 여기서 금강교까지 1km 가량 이어진 흙길을 월정사 전나무숲길이라고 부른다. 최고 수령 370년이 넘는 전나무부터 평균 수령 80년인 1700그루 전나무가 하늘 높이 시원하게 뻗어 있다. 황토길 바닥에는 오랜 세월 동안 캐켜이쌓인 나뭇잎이 양탄자를 만들어 맨발로 걷기도 좋다. 이 길은 드라마 <도깨비>에도 등장해 연인들이 데이트 장소로 자주 찾는다.

선재길은 오대산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10km에 걸친 숲길이다. 월정사 일주문에서 해탈교, 월정사, 반야교를 거쳐 회사거리를 지나면 숲길이 나온다. 1960년대 도로가 나기 전부터 스님과 불자들이 오가던 사색과 구도의 길이다. 길이 가파르지 않아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나설 수 있다. 주목, 단풍 등 아름드리 나무가 즐비하고 밭치에는 자연 그대로의 덤불과 야생화가 반겨준다. 길을 걷는 내내 배경음악처럼 계곡물소리가 들리고 이쁜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도 만날 수 있다. 새소리를 들으며 걷다보면 3시간이 넘는 산행도 지루할 틈이 없다. 전나무잎이 그대로 빠죽빠죽 불거진 전통 나무다리 섭다리, 출렁다리를 건너는 뜻밖의 즐거움도 만날 수 있다. 숲, 역사, 계곡이 어우러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체험학습지로 자주 찾는다.



사
색
과
치
유



체
험
과
레
저

대관령 양떼목장

양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풍경으로 유명한 대관령 양떼목장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인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로 선정된 바 있는 유명 관광지다. 하늘엔 양털 구름이 떠 있고, 언덕의 양은 구름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풍경이 아름답다. 목장의 산책로는 1.2km 길이로 한바퀴 도는 데 40여 분 걸린다. 대관령 삼양목장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7.5배로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양방목지, 소방목지, 타조 사육지를 갖추고 있다. 드라마 <연애소설>에 나와 관광객들의 촬영 스팟으로 유명하며 연애소설나무 숲터,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특히 산 정상의 하얀 풍력 발전기는 웅장하고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장암산 패러글라이딩

장암산 700미터 부근에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있다.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선발전을 비롯해 각종 대회와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주말마다 동호인들이 몰려든다. 적당한 풍속, 고도, 아름다운 경관 등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기에 최적화되어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근처 바위공원에 가면 평창강 위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패러글라이딩 행렬과 다양한 자연암석을 볼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은 9만 원에 사전 예약을 통해 즐길 수 있다.

이효석 문학관

평창하면 가장 먼저 이효석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동계올림픽 이전에는 평창을 이효석의 고장으로 기억할 정도로 이효석은 평창을 대표하는 브랜드처럼 인식되었다. 이효석 문학관에서는 작가로서의 발자취뿐만 아니라 ‘이효석’이라는 개인의 인생을 엿볼 수 있다. 여유가 있다면 평창군에서 조성한 ‘효석문학 100리길’ 걷기를 추천한다. 문학의 길, 대화장터 가는 길과 함께 강따라 옛길따라 소설 ‘메밀꽃 필무렵’의 실제 무대를 밟 아래 느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대관령 국제음악제

매년 여름이면 알펜시아 리조트 안의 뮤직텐트와 콘서트홀로 클래식 팬들이 모인다.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저명한 국내외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정명화 음악감독의 사회와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 손열음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세계 정상의 연주자들이 실내악이나 관현악을 연주하는 저명 연주자 시리즈는 공연 몇 주 전부터 매진될 정도로 인기다. 음악학교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스터 클래스는 일반 관람객에게도 공개된다. 파란 하늘 아래 하얗게 높이 솟아 오른 거대한 야외 뮤직텐트는 저녁 조명이 커지면 더욱 분위기가 고조된다. 비가 오면 빗방울이 텐트 위로 떨어지는 소리를 음악과 함께 운치있게 즐길 수 있다. 미리 매진되는 공연이 많으므로 예매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갑자기 평창을 방문했다면 공연 몇 시간 전에 판매되는 취소 티켓을 공략해 보자.



3.



4.



5.

1. 월정사 8각 9층 석탑

2. 월정사 전나무숲길

3. 대관령 양떼목장

4. 장암산 패러글라이딩

5. 대관령 국제음악제

평창의 맛과 멋

평창의 깊은 산에서 채취한 향긋한 봄나물로 한 상 차린 산채 정식만큼 이 봄에 어울리는 음식도 없다. 나른한 봄날 시원한 메밀 막국수 한 그릇과 잘 구운 평창 한우도 기운을 북돋아 줄 평창의 맛으로 추천한다.



1.



2.

• 메밀 막국수

평창군의 봄평면은 한 집 건너 국수집이라고 할 정도로 메밀국수집이 많다. 메밀은 저칼로리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 다이어트에도 좋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밀국수뿐만 아니라 평창에서는 메밀전병, 메밀전, 메밀국수침, 메밀싹비빔밥 등 다양한 메밀 음식을 접할 수 있다. (추천 식당 - 고향막국수, 현대막국수, 진미식당, 봄평막국수, 미가연, 옛골)

• 송어

평창은 우리나라에서 송어 양식이 처음 성공한 곳으로 송어회가 유명하다. 평창의 계곡물은 맑고 깨끗한 1급수라 송어 양식에 적합하다. 송어는 연어와 같은 붉은색을 띠며 연어보다 기름기가 적고 담백하며 고소한 맛이 강하다. 송어만 따로 초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다가 가늘게 채썬 당근, 오이, 깻잎 등의 야채와 콩가루, 침기름을 넣고 버무려 비벼 먹는다. 송어회를 먹고 나면 끓여 나오는 매운탕의 국물맛이 시원하고, 빠져 튀겨낸 송어튀김은 부드럽고 고소해 아이들이 먹기 좋다. 송어회 식당은 진부면 노동계곡 근처에 몰려 있다. (추천 식당- 남우수산, 쉼바위, 운두령 한옥 송어횟집)

• 곤드레밥

평창, 정선 등 산간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천으로 널린 곤드레를 뜯어 삶아 밥을 해먹고 어려운 춘궁기를 이겨냈다. 곤드레는 향이 강하지 않아 주로 밥을 해먹는다. 매년 5월 평창 곤드레축제가 열린다. 산에서 직접 나물을 채취하고 곤드레밥을 비롯해 곤드레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평창 지역의 산채정식이나 곤드레밥 전문식당에서도 말린 곤드레 나물을 판매한다. 곤드레밥과 산채 정식 식당은 오대산 가는 길에 쉽게 찾을 수 있다. (추천 식당- 가벼슬, 동대산식당, 부일식당, 부림식당)

• 황태구이

황태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추운 덕장에서 12월부터 겨우내 열렸다 녹였다 하는 과정을 반복해 만든다.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불며 공기가 맑은 고산지대인 대관령, 미시령, 진부령은 이에 적절한 장소다. 양념고추장에 재어놓았다가 석쇠에 구워먹는 황태구이는 밥도둑이다. 황태구이 식당은 주로 덕장과 가까운 대관령면 횡계리 근처에 많다. (추천 식당- 황태회관, 황태덕장, 흔들바위, 날마다 좋은 집, 아우네)

1. 메밀막국수 2. 황태해장국 3. 황태구이



N O R O O
P E O P L E

성실한 한 달, 목표를 완성하는 한 해,
꿈을 실현하는 미래는 바로 오늘의
당신, NOROO인이 만들니다.

우리 NOROO인은 지금 또 다른
백년을 향한 위대한 여정 위에 있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매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불굴의 NOROO, 또다른 백년을 향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

'NOROO 그룹 가치/역사 이해 및 공감' 교육

차가운 바람 끄트머리에 불기운이 실린 지난 3월 7일, (주)노루페인트 안양공장의 연구소 교육장에서는 평소 보지 못하던 얼굴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입사 5년차 이하의 NOROO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NOROO 그룹 가치/역사 이해 및 공감 교육의 14차수 교육이 있던 날이었다. 바로 옆 (주)노루페인트 사무실은 물론 서울 그리고 포항, 부산과 울산 등에서 온 여러 계열사의 NOROO인들은 첫 만남의 낯섦을 반가운 인사로 허물고 NOROO의 새롭고도 위대한 여정을 향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었다.



14차수 단체 사진

교육생들은 차수마다 다양한 포즈로 단체사진을 남겼다.
14차수였던 이날은 모두가 각자의 위치를 잡아
14라는 숫자를 완벽히 만들었다.

NOROO Way & Re-Start

1945년 NOROO의 창업은 누군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며 이루어낸 것이었다. 그 밑바탕에는 “나의 조국을 위하여”라는 사업보국의 정신이 있었다. 이러한 창업정신을 계승하고 세계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2012년 시무식에서 ‘NOROO Way’가 선포되었다.

그리고 2016년 9월, NOROO Way의 실행력을 제고할 NOROO Way Restart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사회와 업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에 발맞추어 NOROO Way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 실천을 도와 NOROO 그룹의 가치 경영을 보다 충실히 실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사내강사/CA(Change Agent) 중심의 NOROO Way 실무협의회가 최고경영진의 심사와 선발에 의해 구성되었다.

NOROO Way 실무협의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 없이 도전하는 NOROO인,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목적의식

을 가지고 맡은 바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NOROO인’을 목표로 창업정신을 비롯한 NOROO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직원 설문, 임원과 고객사 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17년 12월부터 오는 4월까지는 입사 5년차 이하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토론 활동을 진행하며 5월 이후에는 입사 5년차 초과 직원을 대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가에서 세계로, 다시 도약하는 NOROO

“NOROO 그룹은 선대회장님의 ‘나의 조국을 위하여’라는 창업정신을 기반으로 세워진 이래 지난 70여 년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공익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화, 4차 산업혁명 도래와 같이 세계가 급속도로 변해가는 시점에 100년, 200년, 300년을 지속하고 창업정신을 올곧게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좌측부터 (주)노루오토코팅 생산기술팀 이종호 주임,
(주)노루페인트 신유통사업팀 황지유 사원, (주)노루기반 농자재해외사업팀 이정민 책임대리.



NOROO Way 실무협의회

좌측부터 (주)노루홀딩스 윤리경영실 이대희 과장, (주)노루오토코팅 기술1팀장 정진한 부장,
(주)노루로지넷 디파이너스 김강호 상무, (주)노루페인트 디지털전략팀장 김기도 부장,
마케팅전략팀 지남철 차장, 인사총무팀 고재수 차장, (주)노루비케미칼 생산팀장 정진성 부장,
(주)노루알앤씨 경영지원팀장인 김한주 차장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했다.

는 NOROO Way를 다시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NOROO 그룹은 신사업과 글로벌화를 통해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도전을 시작함으로써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합니다. 이는 곧 창업정신의 재해석이자 적극적인 실행입니다.” 3월 7일 14차수의 교육장에서 한영재 회장은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NOROO Way Restart 프로젝트의 방향을 교육생에게 명확히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목민(Nomad) 전략을 실천 사례로 제시하고 NOROO Way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혀 임직원들의 성장과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날의 강사로 마이크를 잡은 사내강사/CA 김기도 부

장(주)노루페인트 디지털전략팀장)은 실패를 두려워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온 NOROO의 가치를 73년 역사를 통해 보여주었다. 각종 설문 및 임직원, 고객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실무협의회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NOROO의 매력과 자부심, 꿈은 교육생에게 생생히 전달되었다. 강의 내용 중 다양한 외부 사례들은 가치 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준비된 설문은 교육생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준비 자세를 갖추도록 독려했다. 교육 운영 및 지원을 맡아 진행을 도운 이대희 과장(주)노루홀딩스 윤리경영실)은 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많은 이들의 참여와 노고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감사의 전했다. 앞으로도 실무협의회는 NOROO의 가치와 자긍심

을 잘 전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이다.

새로운 백년을 향한 마음

“입사한 지 일년이 채 안되었는데, 이처럼 많은 계열사와 부서를 한 자리에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어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게 되니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는 눈앞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바빠지곤 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NOROO Way라는 가치관을 유념하고 따라야만 업무와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

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저희 그룹의 가치관, 개념을 거듭 들으니 아이덴티티가 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역할과 개인적 목표도 설정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요.” 교육 후 소감을 묻자 (주)노루페인트 신유통사업팀의 황지유 사원과 (주)노루오토코팅 생산기술팀의 이종호 주임, (주)노루기반 농자재해외사업팀의 이정민 책임대리는 이렇게 밝혔다. 그들의 사원증에는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메탈 스티커가 반짝였다. 이 스티커를 볼 때마다 그들 마음 속 NOROO Way도 반짝 빛나지 않을까. 그 작은 빛이 모이고 모일 때 NOROO의 새로운 길은 또다른 백년을 향해 찬란하게 뻗어나갈 것이다.



날마다 좋고 언제나 좋은 NOROO와의 동행

2018 (주)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초청 세미나

지난 2월, 유난했던 폭설이 멎고 따스한 햇빛이 스며든 제주에서 2018 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주)노루페인트는 해비치 호텔에 ‘날마다 좋은날 언제나 좋은 사장님’이라는 인삿말을 새긴 대형 현수막을 걸고 전국에서 온 특약점주를 맞이하였다. 지난 한해 숨가쁘게 달렸던 이들은 ‘공감+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1박 2일의 일정을 통해 2018년을 위한 새로운 정보와 에너지를 충전하였다.

미래를 향하는 보랏빛 열정

설날이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라면 (주)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초청 세미나는 NOROO 가족이 모이는 명절인 셈이다. 전국의 (주)노루페인트 특약점주들이 모여 지난해의 안부를 묻고 현재의 수고를 격려하며 앞으로의 건승을 서로 빌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세미나와 신제품 전시가 준비된 행사장 곳곳은 미소와 약수, 덕담을 건네는 특약점주들과 (주)노



루페인트 임직원의 모습으로 명절과 같은 훈훈함이 가득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세미나가 시작되자 김용기 부회장이 단상에 올라 (주)노루페인트 임원들을 소개하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에 이어 환영인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진명호 대표 등 NOROO인 모두는 올해의 컬러인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하여 2018년을 향한 열정을 컬러로 보여주었다.



경이로운 2018 신제품

“노루페인트는 Bright Color, Smart World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매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제품 발표를 맡은 (주)노루페인트 기술연구소장 김재학 상무와 마케팅전략팀의 조현정 대리는 제품 소개와 함께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을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보충 설명함으로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제품은 모두 13종으로 건축용에서는 킹스테인과 팬톤 에어프레쉬, 바닥/방수용에서는 예그리나 칼라 플로어, 자동차 보수용에서는 하이큐 플라스틱 퍼티가 부각되었다. 외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 스테인인 킹스테인은 저장성이 매우 뛰어나고 층 분리가 적

어 잣은 교반이 필요치 않다. 팬톤 에어프레쉬는 대기 중의 휘발성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놀라운 페인트다. 예그리나 칼라 플로어는 전용 투명 애플리케이션과 특수 메탈릭 칼라 펄로 오로라처럼 아름다운 바닥을 연출한다. 친환경적일뿐만 아니라 시공도 쉽고 주차장 바닥용 마감재 규격도 확보하여 다양한 장소에 쓰일 수 있다. 하이큐 플라스틱 퍼티는 범퍼 수리에 대한 보험약관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부착성과 유연성이 우수해 하자 발생이 적다. 차분히 신제품 소개를 마친 김재학 상무는 ‘걱정말아요 그대’를 개사하여 “우리 함께 성공합시다. NOROO와 함께 끝까지 갑시다!”라고 노래하여 더욱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제품은 더 쉽게, 고객은 더 많이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들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마케팅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었을까. (주)노루페인트 마케팅본부 백승찬 본부장은 가성비에 이어 마음의 만족, 즉 가심비를 추구하고, 혼자만의 생활 속에서도 확실한 행복을 얻으려 하는 요즘의 소비 경향을 언급하며 2018년에는 페인팅의 A부터 Z까지를 실제 고객 눈높이에서 도와주는 셀프 인테리어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를 중심으로 노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에는 <Cover ALL 순&수 캠페인>으로 만든 동영상들이 총 450만 번 이상 플레이됨으로써 좋은 홍보 효과를 낸 바 있다. 또한 NCTS(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로 컬러 전문 기업 (주)노루페인트의 이미지를 견고히 구축하고, 특약점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동영상과 카달로그, 넉넉한 샘플과 활용도 높은 판촉물, 더욱 편리한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서로의 공감을 강조하며 마무리된 세미나는 저녁 연회로 이어져 장기근속 특약점주 시상, 축하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이튿날에는 다양한 스포츠와 체험 활동으로 NOROO라는 이름 안에 모두가 한가족임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2018 (주)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초청 세미나는 다시 만날 2019년까지의 추진력을 넉넉히 충전 할 수 있었던 귀한 자리였다.



지난 한해 숨가쁘게 달렸던 이들은 ‘공감+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1박 2일의 일정을 통해 2018년을 위한 새로운 정보와 에너지를 충전하였다.



NOROO인의 자부심으로 지역 노사문화를 선도하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

“제 활동의 뿌리는 NOROO입니다. 늘 NOROO인의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의 의장으로 선출된 김용목 (주)노루페인트 전 노조위원장의 말에는 NOROO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그는 21년간 NOROO인의 정신으로 노동조합 일에 임해 왔다. 그의 활동이 경기 지역으로 확대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98%의 압도적인 지지

지난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는 2018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열어 제13대 의장과 사무처장을 선출했다. 전체 선거인 857명 중 721명이 참가한 결과, 찬성 701표, 반대 12표, 무효 2표로 98%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김용목 (주)노루페인트 전 노조위원장이 제13대 경기지역본부 의장에 당선되었다.

98%라는 지지율은 흔치 않다. 하지만 김용목 의장에게는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주)노루페인트의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경기지역 중부지부의 의장과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에 이어 이번 선거까지 총 12번의 선거를 치러왔던 그는 매번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도 추대 끝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것이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김용목 의장에게 물으니 트레이드 마크인 웃는 얼굴로 답한다.

“현장 대표자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감사하게도 의장에 당선될 수 있었지요.” 늘 현장을 강조하는 김용목 의장다운 대답이다.

통합의 힘을 현장 속으로

‘통합의 힘을 현장 속으로!’는 김용목 의장의 선거운동 슬로건이었다. 이해와 소통을 위해 늘 현장을 누비기에 그의 차는 1년이면 10만 킬로미터의 주행거리를 기록한다. “물 위의 백조는 우아해 보이지만, 물 속의 두 발은 굉장히 바쁘지요. 노사의 교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사전 교섭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물 속의 발처럼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샀고, 힘든 시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소신인 ‘손해 보는 리더십’은 결국 조합원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동창이 제 별명을

49대51이라는 철학

기업 없이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이는
기업도
살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풀기도 어려운
노사관계라는 문제의
답은 바로
양보입니다.



'바보 사나이'라고 지어 줬습니다. 항상 웃으며 성질 한번 부릴 줄 모르고 늘 손해만 보려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를 뒤로 미루고 조직과 회사를 우선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공하려면 손해 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의 소신은 '49대51'이라는 노동철학으로도 연결된다.

"노동자가 49를 가져가고, 기업에게 51을 준다는 생각입니다. 기업 없이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이는 기업도 살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풀기도 어려운 노사관계라는 문제의 답은 바로 양보입니다. 그리고 양보는 강자가 먼저 하는 것이지요. 조직력과 힘을 가진 노조가 먼저 물러설 때 기업은 노동자와 노조를 신뢰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1%까지 채워주려 하지요. 결과적으로는 노동자가 51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원 교섭입니다. (주)노루페인트의 노사관계는 이러한 상생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기업이 오고 싶은 경기도,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경기도

경기도는 인구 1,300만 명으로 IT, 제조,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노동이 복합되어 있으며 지역 총생산 1위와 수출 1위를 기록하는 지역이다. 이곳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자리를 맡게 된 김용목 의장의 각오는 더욱더 굳세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안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조직의 힘을 모아내고자 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여러 단체들과 대화하며 협안을 풀어가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경기지역본부가 자생력을 가지고 노동자와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활동, 봉사활동도 펼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기업이 오고 싶은 지역,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지역이 되겠지요."

그의 집무실에는 정갈한 서체의 현판과 시가 걸려 있다. 그의 은사들이 직접 쓰고 지어 선물한 것이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용기를, 갈등이 있는 곳에 합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불어넣자"는 현판은 그가 속한 한국노총의 역할을, "모두를 위해서는 하늘의 뜻으로 / 나 자신을 위해서는 결연히 무언(無言)"이라는 시구는 김용목 의장 자신의 막중한 책임을 일깨운다. 언젠가 그가 즐거운 인생의 모토로 '성실하게 임하면 즐거움이 찾아든다'는 '성실수희(誠實頃喜)'를 꼽았듯이, 이러한 역할과 책임 역시 그는 성실하게 수행하고 즐거움을 수확할 것이다. 또한 소신답게 손해를 감수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을 것이다.

풀잎의 싱그러움과 꽃잎의 향기로움을 담다

(주)포승ESQM팀 김대기 과장 가족

“오빠 것은 풀잎이 많으니까 풀밭, 내 것은 꽃잎이 많으니까 꽃밭!” 봄 햇살을 닦은 지은 양의 귀여운 목소리가 작은 공방을 가득 채웠다. 하늘이 가까운 수원시 세류동 언덕에 자리한 캔들 공방 클로이즈 달풍의 어느 토요일 오후, (주)노루페인트 포승ESQM팀 김대기 과장의 가족은 이곳을 찾아 꽃과 향을 가득 넣은 캔들을 만들며 추억도 함께 담았다.

캔들에 향기를 채우다

수채화처럼 여러 컬러로 물든 캔들, 꽃으로 탑을 쌓은 듯한 캔들, 바다 속 풍경을 옮겨놓은 듯한 클리어 캔들 등 클로이즈 달풍의 진열대는 다채로운 캔들이 가득해 시선이 바빠진다. 가구마다 비상용으로 챙겨두던 옛날의 흰 양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름다운 ‘캔들’의 세상이다. 냄새를 없애고 은은한 향을 채워주는 기능성을 가진 데다가 보기에도 좋아 선물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요즘의 캔들이다. 캔들의 틀과 염료, 향료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컬러, 향을 낼 수 있어 DIY에도 적합하다. 오늘 김대기 과장 가족은 꽃을 가득 넣은 소이캔들을 만들 예정이다. 일반 파라핀왁스는 석유 부산물을 정제한 것인데 소이캔들에 쓰이는 소이왁스는 콩에서 추출한 것이라 선호도가 더 높다.





클로이즈 달퐁의 대표인 김태령 강사의 지도에 따라 자작나무 심지를 유리병 안에 곧게 세워둔 가족들은 각자의 캔들을 위한 향료를 골랐다. 김대기 과장과 지은 양은 시트러스 계열의 향을, 부인인 이현화 씨와 큰아들 진우 군은 플로럴 계열의 향을 선택, 미리 녹여둔 왁스에 넣고 열심히 젓는다. “왁스를 녹이고 좀 식힌 뒤 향료를 넣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울 때 넣으면 향이 날아가고 굳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향료가 잘 섞여야 향이 골고루 배고, 캔들에 얼룩이 생기지 않으니 많이 저어 주세요.”

다음 순서는 유리병에 왁스를 붓는 것이다. 왁스가 옆으로 새지 않도록 온도계 막대를 대고 조심스레 붓는데, 가장 어린 지은 양도 강사의 지도 아래 깔끔하게 해냈다. 이미 학교에서

캔들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진우 군도 왁스 한 방울 훌리지 않고 성공! 이제 적당히 굳기를 기다리며 자신만의 플라워 데코를 구상하면 된다.

가족의 추억을 담다

김대기 과장에게 이번 체험의 의미는 좀더 각별하다. 일주일 후인 지은 양의 생일이 공교롭게도 근무일이라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고 아쉬웠는데, 마침 체험을 하게 되어 좋은 선물과 기념이 된 것이다. “한창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을 때인데, 오빠가 중학생이 되어 시간 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생겨 잘되었다 생각했죠. 손재주 좋은 진우도 간만에 실력을 발휘해볼 자리고요.” 이현화 씨의 말마따나 진우는



유난히 작은 꽃과 이파리들을 세심하게 배치하며 개성있는 플라워 데코를 완성했다. 학교에서 배운 과학 지식으로 강사의 설명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책임감에 리더십도 있어서 학교에서 회장을 줄곧 맡는 진우는 자랑스러운 큰아들이자 오빠다. 아들과 아빠의 닮은 부분은 얼굴 뿐 아니라 캔들에서도 확인된다. 김대기 과장도 작디작은 꽃으로 미니 캔들을 빼곡히 채운 것. 이현화 씨는 여백의 미를 살려 장미꽃과 안개꽃 줄기로 세련된 캔들을 만들고 지은 양은 장미와 국화, 천일홍에 작은 초록 잎을 가미해 화사하고 풍성하게 꾸몄다.

각자의 개성을 담은 캔들이 완성되고 포장하는 시간, 고운 박스에 캔들을 넣는 가족들의 얼굴은 꽃처럼 환하다. 지은 양은 아빠에게 “좋은 선물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며 의젓

하게 인사하기도 했다. 진우 군은 너무 아까워서 초를 매우 지 못할 것 같았지만 주변에 자랑해야겠다고 어깨를 으쓱 올리기도 했다. 캔들과 함께 또 한번, 가족의 시간이 완성되었다. 풀잎 가득한 진우 군의 캔들처럼 싱그럽고, 꽃잎 가득한 지은 양의 캔들처럼 향기로운 가족의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클로이즈 달퐁

아로마 캔들 크래프트뿐 아니라 천연비누와 화장품, 프리저브드 플라워까지 다루는 클로이즈 달퐁은 원데이와 취미, 자격증 등 다양한 클래스를 운영한다. 강사의 세련된 감각과 꼼꼼한 지도, 넉넉한 재료가 훌륭한 결과물을 보여준다. 클래스 정보는 클로이즈 달퐁 블로그(blog.naver.com/dalpong_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보 도료로 환경을 지키다

(주)중부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정부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하고 적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면 아예 시장에 들어설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노루페인트는 신제품인 워터큐 레디 믹스드 컬러(Water-Q Ready Mixed Color)를 발표하며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수성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 중부는 그 노력의 든든한 파트너다.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다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즉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위험물질이다. VOCs는 자동차 배기ガ스와 각종 산업체에서 쓰이는 용매 등에서 발생하는데 도료의 유기용제 또한 VOCs 발생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주)노루페인트는 많은 도료를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도료를 개발함으로써 VOCs 저감을 실현시켰다. 그리고 자동차 보수용(이하 자보용) 도료에서도 ‘워터큐(Water-Q)’ 브랜드를 런칭하여 자보용 도료의 수성화를 이끌고 있다. (주)노루페인트 자보 모임의 회장이자 전국 자보 협의회의 임원인 (주)중부의 조남일 사장은 워터큐를 앞장서서 들임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민첩한 대응을 하고 있다.

“친환경은 현재 자보용 도료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게다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규제책이 나와도 적용되기까지 5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2년 안에 실제 규제가 시작됩니다. 미리 준비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요.”

1988년 (주)중부를 시작한 이래 30년간 자보용 도료 시장에서 활약해 온 조남일 사장의 말은 무게감이 남다르다. “앞서가는 자보 대리점은 5년, 7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저희 기술부도 워터큐로 미리 수 백 가지의 조색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앞선 준비, 빠른 대응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 신차가 출시되면 자보용 도료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한다.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니까요. 신차가 6가지 컬러로 나오면 그 컬러를 미리 다양하게 준비해놔야 합니다. 다른 부품은 준비에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해 주는데, 도료는 바로 대응해 줘야 합니다.”

신차의 색상이 6가지면 6가지의 컬러만 만들어 쓰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생산 과정에서 생산일, 생산라인에 따라 각각의 차마다 컬러가 미묘하게 다르므로 부분 보수를 하기 위한 도료는 사고차만의 컬러에 정확하게 맞춰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보용 도료의 조색기는 반자동이다.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부분을 사람의 눈으로 해내야하기 때문이다. 조남일 사장과 그의 동생이자 (주)중부의 기술부장인 조남국 부장은 30년의 노하우로 국산, 수입 등을 아울러 각 차종에 대한 8백 여 가지의 컬러 배합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수성도료 워터큐에 대한 배합 리스트도 새로 만들고 있다. “내일 당장 수용성 도료를 쓴 차를 수리한다 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죠. 조남일 사장님은 늘 먼저, 앞장서서 노루페인트의 사업을 함께 해 주십니다.”

(주)노루페인트 자보영업1팀 이용훈 과장은 조남일 사장의 대응이 언제나 빠르다고 말한다. (주)노루페인트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도 먼저 찾아와 테스트를 요청하는 곳이 (주)중부다. (주)중부는 (주)노루페인트와 성장의 역사를 공유하고 미래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다.

시장 속 돌파구를 찾다

조남일 사장은 최근 자보용 도료 시장의 매출 신장을 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고 말한다. 운전자의 준법정신이 높아지고 자동차가 첨단화되면서 사고 발생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차가 많아지는 것도 사고 발생율을



30년간 자보용 도료 시장에서 활약해 온 (주)중부는 워터큐로 미리 수 백 가지의 조색을 테스트하고 있다.



낮추지요. 차가 많아지면 자보용 도료도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 위 속도가 느려지니 사고가 덜 납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 교통사고 발생율은 2015년에 비해 15% 줄었습니다.” 조남일 사장은 사고율이 낮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중부로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친환경 도료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것도 그 일환이며 각종 박람회를 다니며 신제품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 열리는 교육에는 직원들을 보내 먼저 공부하게 한다.

“페인트 외에 다른 것을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또 열심히 키워나가야죠.”라는 조남일 사장의 말은 시장의 어려움이라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변화를 읽고 먼저 도전하며 거듭 분투할 것을 다짐하는 조남일 사장의 모습은 진정한 NOROO인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NEWS BRIEFING

뉴스 브리핑



NOROO 경기 주주총회 개최



㈜노루페인트, 경기도와 맑은 숨터 만들기 MOU 체결



노루팬톤색채연구소(NPCI), 유럽 유력잡지에서 집중 조명



NPCI, 태국에 2018~19 글로벌 컬러 트렌드 제시

(주)노루홀딩스

NOROO 정기 주주총회 개최

지난 3월 22일, ㈜노루홀딩스의 제72기 정기주주총회와 ㈜노루페인트의 제12기 정기주주총회가 주주 및 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 본사 NOROO 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각 사의 2017년 사업연도의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 종속회사 및 지분법투자회사의 실적을 포함한 연결손익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이 발표되었으며 회사 성과에 대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승인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의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배당도 각각 승인되었다.

데 '맑은 숨터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 맑은 숨터 조성 사업은 도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실내 공기가 열악한 시설을 친환경 페인트와 벽지, 장판, 조명, 자연환기창 등으로 꽤적하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노루페인트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환경을 개선한다는 경기도의 사업 취지에 공감해 올해로 3년째 동참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실내 공기 질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맑은 숨터 만들기 사업 전개의 배경을 설명했으며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취약 계층은 열악한 실내 공기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친환경 페인트 지원을 통해 실내 환경을 개선, 꽤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돋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루페인트는 경기도의 '맑은 숨터 조성 사업' 외에도 법무부, 경기도청, 적십자 등과 협업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주)노루페인트

㈜노루페인트, 경기도와 맑은 숨터 만들기 MOU 체결

㈜노루페인트는 지난 3월 16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25개 민간 참여기업, 자원봉사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

노루팬톤색채연구소(NPCI), 유럽 유력잡지에서 집중 조명

지난 2014년 출범한 ㈜노루페인트 산하의 노루팬톤색채연구소(NOROO-PANTONE Color Institute, 이하 NPCI)의 국제적 위상

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NPCI는 기술 제휴와 함께 건축, 자동차, 가전, 패션,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매년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이하 NCTS)를 개최하여 컬러 및 관련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있다. 이 행사에 관련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강연자로 참석하면서 해외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NPCI의 인지도와 선호도도 올라가고 있는 것. 이를 반영하듯 이탈리아 유력 건축잡지(Interni, Platform, IOARCH)는 글로벌 패션 기업 막스마라의 전속 공간 디자이너이자 뉴욕현대 미술관의 공간 디자인을 총괄한 자국의 건축가 이코 밀리오레 교수가 NCTS 2018에서 강연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 기사는 "한국의 NOROO 그룹이 개최한 NCTS 2018에서 이코 밀리오레 교수의 강연이 주목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노루팬톤색채연구소와 NCTS에 대해 언급했다. 노루팬톤색채연구소는 행사 개최 외에도 최신 컬러와 디자인의 정수를 담은 트렌드북 「COVER ALL」을 발행, 해외 디자이너 및 건축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COVER ALL」은 전 세계의 방대한 컬러와 디자인의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미래의 트렌드와 컬러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소개함으로써 연구소의 역량을 해외에 보여주고 있다.

NPCI, 태국에 2018~19 글로벌 컬러 트렌드 제시

NPCI는 태국 정부 산하 '태국 디자인 센터(TCDC, Thailand Creative Design Center)'의 초청을 받아 제1회 '2018 방콕 디자인 위크(BKKDW: Bangkok Design Week, 1/27~2/4) 기간 중 강연을 진행하였다. 김승현 수석 연구원은 2018~19 글로벌 컬러 트렌드와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컬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NPCI의 방대한 컬러 및 소재를 집대성한 트렌드북 「COVER ALL」 또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주최 측인 태국 디자인 센터의 키디라타나 피티와니치(Kittiratana Pitioanich) 센터장은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가들을 초청한 이번 행사에서 아시아 컬러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컬러 연구소 NPCI가 글로벌 컬러 디자인 트렌드를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었다."고 하면서, "태국의 한류 붐과 더불어 아시아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국의 'K-Design'이 더 많이 소개되어 문화 전체로까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루페인트, 베트남 하노이 호안카엔 벽화사업

페인트 협찬

㈜노루페인트는 하노이의 대표적 관광지인 호안카엔 인근 예술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페인트를 협찬하였다. 이번 하노이 호안카엔 벽화 사업은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대사관 및 국

NEWS BRIEFING

뉴스 브리핑



(주)노루페인트, 베트남 하노이 호안키엔 벽화사업 페인트 협찬



2018 신기술/신제품 전시회 개최



(주)노루케미칼, 무재해 8배 달성 인증패 수상



(주)더기반, 삼죽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협약식

제문화교류재단, 유엔헤비탄, 호안키엔 시 정부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난 2월 10일, 완공 축하기념식이 열렸다. 벽화는 호안키엔 호수에서 룽비엔 철교로 이어지는 고가철로 150m 돌담길 아치에 그려졌으며 베트남 작가 9인과 한국 작가 5인이 함께 작업했다. 이번 사업은 2016년 베트남 땀타잉 벽화마을 조성에 (주)노루페인트가 페인트 전량을 협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졌다. 당시 땀타잉 벽화마을은 글로벌 공헌 사업의 하나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땀타잉 시, 유엔 해비타트 베트남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한국의 이강준 공공미술연구소가 시행하였으며 (주)노루페인트가 페인트를 협찬한 한국식 벽화 마을로, 주민 20%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그림 작업을 도왔으며 ‘2017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받은 바 있다. 땀타잉 벽화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저개발 지역이었으나 벽화를 계기로 입소문이 나면서 평일 500여 명, 주말이면 2,000여 명이 찾는 생태관광도시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시 김정숙 여사가 찾아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다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주)노루페인트 관계자는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된 국내의 많은 곳에 벽화사업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해 왔다. 이제 인연을 맺은 여러 국내외 단체들과 함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 신기술/신제품 전시회 개최

‘2018년 상반기 신제품/신기술 전시회’가 안양공장 스마트센터 세미나실에서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개최되었다. 2018년 NOROO 그룹 화학사업부문의 핵심 제품 및 선행 기술을 공유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주)노루페인트, (주)노루코일코팅, (주)노루오토코팅, (주)노루케미칼이 참여하여 그동안의 성과물과 기술을 전시, 소개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춰 향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전 계열사 영업 및 기술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노루케미칼

무재해 8배 달성 인증패 수상

(주)노루케미칼은 지난 1월 5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가 수여하는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패>를 수상했다. (주)노루케미칼은 2008년 3월 22일부터 2017년 11월 8일까지 총 2,968일의 무재해 일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화학 공장에서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무재해 8배 목

표를 달성해냈다. (주)노루케미칼은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방폭 기능을 갖추고, 조작 방식을 개선하는 등 설비 자체의 위험 요소를 없애고 재질별 그리琳더 마찰 실험을 거쳐 작업 도구를 최적화하는 등 작업 공정을 꼼꼼히 살펴 재해 요소를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그룹 계열사간의 교차 안전점검을 통해 서로 벤치마킹하는 한편, 안전보건정보를 공유하여 전사적으로 안전관리활동을 추진해 왔다. 박현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장은 (주)노루케미칼에 대해 “핵심 위험에 대한 개선 활동을 지속하여 PSM 사업장의 모범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주)더기반

안성연구단지 화합의 시간

(주)더기반은 3월 2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안성연구소에서 척사대회(윷놀이)를 진행하여 직원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최규설 대표이사는 “부족하지만 정성껏 마련한 자리인 만큼 우리 고유의 전통을 살리고 직원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 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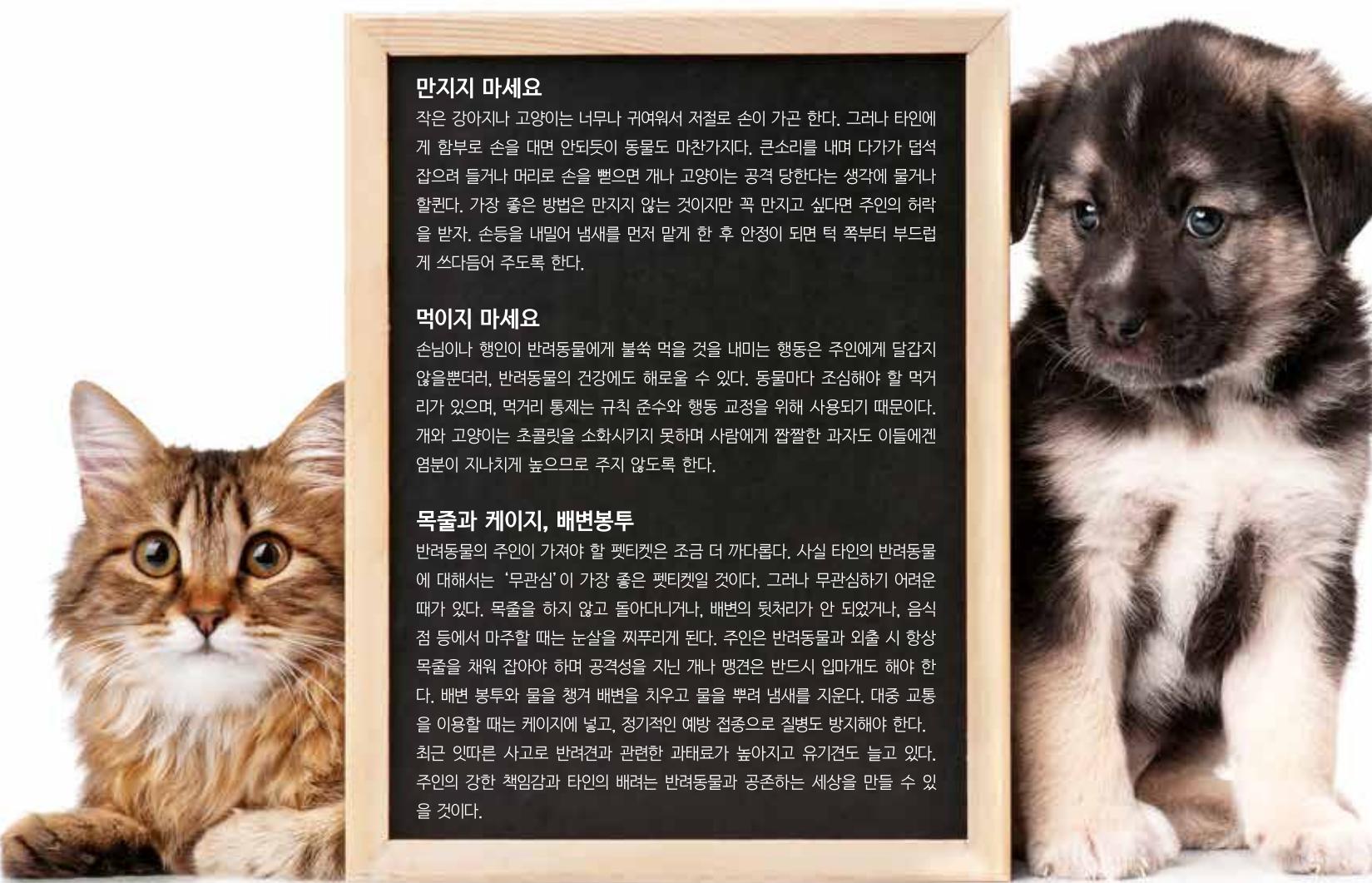
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주)더기반의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9개 팀을 구성하여 토너먼트로 진행된 척사대회에서는 연구4팀(고추)이 1등을 차지하여 상품인 가정용 먹서리를 수여했다. 또한 2등 팀은 쌀 10kg씩을 수여하여 대회를 즐겁게 마무리하였다.

삼죽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협약식

(주)더기반은 안성시 삼죽면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 협력협약을 맺고 더기반 안성연구소에서 1월 18일에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기초생활 거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으로 농촌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의료 등 생활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 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안성시 기관 관계자와 삼죽면 지역 대표 주민 등은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꾀할 내실 있는 사업 토대를 만들기 위해 더기반의 적극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위한 예의 펫티켓

최근 반려동물의 수가 늘면서 관련 이슈도 많아졌다. 반려견의 짖는 소리가 이웃간의 싸움으로 커지거나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도 적지 않으며 타인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함부로 대해 신체적, 감정적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왕왕 생긴다. 이러한 사고와 서로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펫티켓'이 필요하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의를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을 가리키는 합성어로,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예의범절을 말한다.



01.

'NOROO 그룹 가치/역사 이해 및 공감' 교육 14차수의 강의를 맡으신 (주)노루페인트 디지털 전략팀장 김기도 부장님은 유머를 가미한 편안한 진행으로 교육장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껏 올라간 교육생들의 광대가 살짝 보이시지요?



02.

2018 (주)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초청 세미나장 입구에는 특약점 사장님들을 폭소케 한 포토월이 있었습니다. 특약점 사장님들의 성함을 넣어 재미있게 꾸민 영화 포스터가 그것입니다. 모든 특약점 사장님! 이제까지의 흥행영화보다 더 흥행하는 2018년 되시길 바랍니다!

